

# 공기제균기 ‘바이러스 제로’로 공기시장 진출…美부터 공략

##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최형호 ㈜에이치앤와이텍 대표

20cm 정도 길이의 직사각형 투명 아크릴 상자속에 담배연기를 수 차례 불어넣는다. 상자가 연기로 가득 찼다. 상자안에 있는 ‘바이러스제로 모듈’에 스마트폰용 휴대용 충전기를 연결해 전원을 넣자 상자안엔 대류현상이 나타나면서 점점 연기가 사라진다. 20~30초 정도가 흐르면서 담배연기로 꽉찬 상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하게 변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들만에 순식간에 돌풍이 불어 주변 풍경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모습이 연출됐다. 공기제균기 ‘SP1 바이러스 제로’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 ㈜에이치앤와이텍(H&Y TECH) 최형호 대표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자에게 직접 시연하며 보여준 풍경이다. ‘바이러스 제로’는 최 대표가 미국 시장을 뚫으면 전세계 어디서든 통한다는 믿음을 갖고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 환경청(EPA)에 등록했고, 미국의 전기 안전기준(ETL)도 인증받은 제품이다.

슈퍼 플라즈마 이온 기술 적용 공기청정기 전력의 20% 사용 대기업과 공조시스템 진출 모색

대기업에서 30대 중반에 중역이 되며 능력을 발휘했던 그와 또다른 대기업에서 공기·공조 분야를 연구하며 잔뼈가 굵은 CTO가 의기투합해 내놓은 제품이다. 올해엔 해당 제품의 상표권을 한국에서도 등록해 국내 시장 공략도 본격화하고 있다. ‘공기중 부유미세먼지와 유해 미생물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이온발생장치’ 등으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도 받았다. “이 제품은 공기청정기가 아니다. 공기제균기다.” 벽걸이용이나 휴대용이 마치 공기청정기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묻자 최 대표는 “바로 공기제균기”라면서 수 차례 강조했다. 그의 설명을 듣고나니 모양만 비슷할 뿐 공기제균기라는 말이 이해됐다. “일반 공기청정기는 필터를 사용한다. HEPA필터를 쓰는 공기청정기들은 바이러스까지 제거한다며 홍보한다. 그



에이치앤와이텍 최형호 대표가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런데 HEPA필터를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는 바이러스를 없애는데 한계가 있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에 있는 모든 공기가 흡입식인 공기청정기안으로 들어가 필터를 거쳐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에이치앤와이텍의 공기제균기에는 필터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슈퍼 플라즈마 이온(Super Plasma Ion)’ 기술을 접목한 소자가 발생하는 이온이 공기중의 미세먼지와 각종 바이러스, 오염물질 등을 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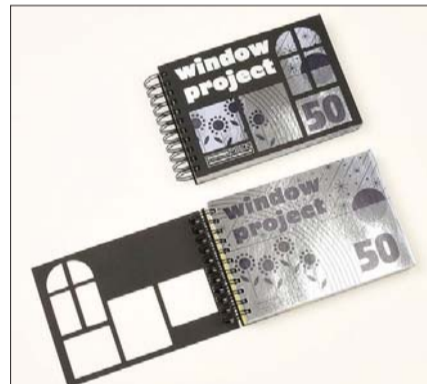
이이온이 공기중에서 정전기를 띠고 있는 초미세먼지와 결합해 바닥에 가라앉도록 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를 타고 날아다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도 함께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필터가 없고, 일반 공기청정기가 쓰는 전력의 20%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친환경적이다. 제균 등을 위해 화학물질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지난 8월 대구 인터블고호텔에서 나흘동안 약 5000명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가 있었는데 주최측으로부터 방역의

뢰를 받아 17개 스위트룸에는 벽걸이 제품 1개, 26개 일반룸엔 휴대 제품 1개씩을 각각 설치했다. 입구에도 벽걸이용을 별도로 배치했다. 많은 인원이 다녀갔지만 행사 후 확진자 한 명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공기제균기 ‘바이러스 제로’는 벽걸이용, 휴대용 외에도 모듈로 만들어 자동차용이나 대용량 공조시스템 등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최 대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 관리국에 공기제균기로 등록을 끝냈고, 구축한 위탁판매시스템과 현지 장착회사들을 활용해 미국 자동차애프터마켓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서부에서 동부로 시장을 확장해나가 되 미국에 생산공장을 뒤 공략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미국서 의료기기 인증도 받아 현지 전문병원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H&Y TECH의 바이러스 제로 모듈은 이미 글로벌 고급 브랜드의 명차에도 들어가고 있다.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 등도 최 대표의 활동무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어린이 작품 보고 ‘착한 기부’ 동참하세요”

현대백화점 ‘윈도우 50 프로젝트’ 올해로 36년째... 유·초등학생 대상

현대백화점이 다음달 14일까지 어린이 미술 작품을 온라인 영상과 아트북으로 선보이는 ‘윈도우 50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윈도우 50 프로젝트’는 현대백화점이 1986년부터 36년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는 ‘현대백화점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수상작을 이용해 만든 온라인 영상 전시와 아트북으로 구성된다. 윈도우 50 프로젝트 온라인 영상 전시는 현대어린이책미술관 MO



‘현대백화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을 이용해 만든 아트북의 모습.

KA 유튜브 계정에서 확인 가능하며 동영상에는 올해 어린이그림그리기 대회

에서 환경부장관상, 현대백화점사장상 등을 수상한 10점의 작품이 실린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14일까지 시청된 윈도우 50 프로젝트 동영상 조회수 1회당 5000원을 적립해 기부금을 조성하고, 이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겨울 한파에 취약한 소외계층 가정 50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올해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수상작 50점을 엮어 만든 아트북 ‘윈도우 50’을 서울시내 초등학교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도서관 등 어린이 교육기관 총 20여곳에 기부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 크리스마스 마켓 판매 우수제품 공모

중기부, 중소기업 우수제품 100선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판매할 소상공인·중소기업 우수제품 100선을 공개 모집한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중소·소상공인을 응원하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2021년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고 사전 행사와 함께 국민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크리스마스 마켓 제품 100선 공모는 12월에 여는 본 행사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참여와 국민 관심 확산 등 사

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준비했다. 이벤트 명칭은 ‘국민 산타! 우리 함께 소원(소상공인 응원) 합시다!’로 정했다. 특히 공모한 제품을 대상으로 1차 민간 전문가 서면평가와 2차 ‘국민산타’ 모바일 선택(국민 투표)을 거쳐 총 100개 내외의 제품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뽑힌 제품은 본 행사장 제품 전시와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홍보와 판매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소상공인은 중소기업유통센터 ‘가치샵시디’ 플랫폼을 통해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 중진공, 스마트공장 도입사 비대면 점검

올해 2000곳 대상 실시간 점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해 현황 점검시 비대면 실시간 점검 체계를 도입해 운영한다. 31일 중진공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난 8월부터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내 실화와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도입기업 2000개사를 대상으로 활용 현

황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사업은 스마트공장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교체 및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구축 솔루션 및 장비 활용 현황 ▲활용 관련 기업 애로사항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관련 정책지원 요구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전문가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 코웨이 노블 정수기 빌트인 출시

코웨이가 공간과 위생관리까지 정수기의 모든 기준을 완성한 프리미엄 디자인 정수기 ‘코웨이 노블 정수기 빌트인(CHP/CP-3140N)’을 출시했다. ‘노블’ 브랜드의 첫 번째 정수기 제품인 노블 정수기 빌트인은 정수기 본체가 싱크대 하부에 설치하는 빌트인 타입으로 미니멀한 디자인과 완벽한 위생 케어, 스마트한 제품 관리가 특징이다. /김승호 기자

## 공영쇼핑, 오늘 ‘한우의 날’ 특집방송

강원도 횡성서 ‘라방’도  
공영쇼핑이 11월 1일 ‘한우의 날’을 맞아 3시간 특집 방송을 펼친다. 공영라방에서도 생산 현지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이날 판매하는 모든 한우 상품은 모바일 구매 시 10% 즉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31일 공영쇼핑에 따르면 이번 특집은 맛과 품질이 우수한 한우의 소비 촉진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기획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지역별 한우축제가 축소되거나 취소됨에 따라 한우 농가가 판로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우의 날’은 2008년 한미 FTA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며 국내 축산업자들이 한우 소비 감소를 우려해 매년 11월 1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공영쇼핑이 진행하는 ‘한우데이’ 생방송은 ▲1+등급이상 에드워드드권 한우양념구이(5만9900원) ▲농협한우지에1++(8만7900원) 등 총 3개 상품으로 구성했다. /김승호 기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정부 “해리원격 확진자 증가 가능성... 위반 외국인 엄정 조치” /사진 뉴시스  
▲ 서울 대법 “국정감사 증인 위증, 국회 회기 넘겨도 고발 가능”

▲ 경찰·소방차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내달부터 전용번호판 도입  
▲ 가족관계증명서·건강검진내역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 내년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 4월 2일로 확정 /사진 뉴시스  
▲ “CIA, 서울에 사무실 두고 한국 정보수집...작년 폐쇄”